

[사람+]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신년 인터뷰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교회는 경자년 한 해를 한반도 평화 염원의 해로 지냅니다. 아울러 우리 민족의 화해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 2020년 새해를 맞아 가톨릭평화신문이 진행한 교구장 신년 인터뷰를 요약해 실었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가톨릭평화신문 1월 1일 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을 맞는 신자들과 국민들에게 새해 덕담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 주님의 크신 은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꿈과 희망으로 2020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새해에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소망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시고 늘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영육 간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Q. 새해에도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우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6·25전쟁 70년을 맞아 한 해 동안 매일 밤 9시에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평화와 일치를 위한 교회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모든 문제가 한순간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인내심을 갖고 사랑을 선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께 배우고 전해 받은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느

님 아버지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당신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연민’으로 인간 구원을 완성하셨지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일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를 닮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Q. 혐오와 차별, 이념 갈등 등으로 사회 분열이 심각합니다. 약자를 차별하고 다양성을 무시하는 이런 사회를 신자들과 현대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하느님의 자리를 물질이 대체하며 벌어지는 참극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평신도들은 세상을 그리스도의 정신에 젖어 들게 하여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참으로 인간 사회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기쁨과 희망』, 43항).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에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로하고, 현대 사회의 새로운 노예살이에 얽매인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자신 안에 갇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들이 다시 볼 수 있도록 하고, 존엄성을 빼앗긴 모든 이가 다시 그 존엄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자비의 얼굴』, 16항)

Q. 많은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청년들에게 삶의 희망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려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이들을 위한 친절 한 안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목 일선에 계신 우리 교구 청소년 담당 주교님과 사제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고 계십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 결국 외로움에 갇힐 위기에 놓인 우리 젊은이들을 다시 일으켜줄 것입니다. 주교님과 사제들, 수도자와 직원들, 봉사자들의 열정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닿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